



한국해양공학회 소식

The Korean Society of Ocean Engineers

2007·11
제5호

News letter

Contents

- 01면 회장 인사말**
 - 02면 제12대 해양공학회 회장 당선소감**
 - 03면 연구회 활동**
 - 04면 해양산업 리더 :
포스코 수요개발 그룹**
 - 05면 특집 기사 Hot issue 기술보고 :
Agbami FPSO**
 - 06면 회원사 및 회원 동정**
 - 07면 해양공학 연구실 팀방**
 - 08면 광고, 입회안내, 임원소개**

발행처 / 한국해양공학회

발행인 / 홍석위

펴진이 / 흑사영

펴집워워회

- 위 원 장 / 김선진 (부경대)
 - 편집위원 / 김도삼 (한국해양대학교)
부성운 (해군사관학교)
 - 안석환 (부경대학교)
 - 흥사영 (한국해양대학교)



회장 홍석원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전쟁

2007년 8월 2일 러시아는 국회의원을 태운 유인 심해잠수정을 북극점상의 얼음을 깨고 투입하여 해저 4,000m에 러시아 국기를 설치하고 북극해가 자국의 영해임을 선언하여 북극해 주변에 부존하고 있는 막대한 석유 가스 등의 해저 에너지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공업 국가의 경제개발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이미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고 이에 따라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연히 해양에 잠재하고 있는 석유, 가스, 메탄수화물 등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더 깊은 바다로, 더 추운 극지방 근해로 에너지 자원 탐사가 이어지면서 서 극한 해양 환경에서 안전한 지원 개발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학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저 에너지자원 개발 기술에 필요한 플랜트 기술, 개발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운송기술 등의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관련 학문 발전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 하여야 합니다. 학술활동과 연구회의 활동을 통하여 세계적인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해양플랜트 설계 기술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확보된 기술로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근해에 부존하고 있을 해저 가스, 석유, 메탄수화물과 같은 소중한 에너지 자원을 우리의 손으로 개발하여 확보함으로서 국가 치원의 안전적 에너지 자원 확보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07년도를 활기차고 알차게 마무리하여 많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오며 우리학회가 해저에너지 지원 개발을 위한 기술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견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12대 해양공학회 회장 당선소감



먼저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학회 2008~2009년도 회장에 당선된 동의대학교 윤한기 교수입니다.

우리학회가 86년 창립 될

당시 고 오세옥 박사님이 초석을 마련하실 때 뒷일을 하면서 우리학회와의 인연을 맺어 어느새 21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초창기 창립회원으로 입회하여 초석을 놓던 일들이 새삼 생각납니다. 그때는 대학원 시절이라 학회 일들을 잘 모르면서 참여하였으나, 그동안 우리학회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1994년부터 학회 편집위원으로서 학술진흥재단 학회지등재를 위해서 함께 했던 일들, 1998년부터 우리학회 이사를 역임하면서 이사회 활동, 2004년부터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활동, 2006년부터 감사직을 맡으면서 재정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회 활동을 통한 선후배 간의 즐거운 학술교류의 기억들이 우리학회와 관련한 저의 소중한 이력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한 저에게 회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학회를 책임지고 학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학회는 그동안 역대 회장님들과 우리 회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 21세기 해양한국건설의 목표를 향해 우리학회의 활동방향과 나아가야 할 이정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합심하여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학회가 해야 할 역할을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우리학회의 현안과 발전방안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우리학회의 현안 : 우리학회는 애정을 가진 여러분들이 학회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오셨

고, 학회발전을 위해 향후 개선해야 할 점들을 많이 조언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개선해야 할 점들은 단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우리학회 회원, 평의원 및 임원들이 공감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발전방안 및 운영계획 : 새로 제정된 본 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중심의 학회로서 각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되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일반 회원들이 서로 관련 있는 산업체 및 관계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 산 학 관이 서로 필요로 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문분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문별활동 강화시스템을 구축하고, 학회 위상 제고는 국내적으로는 우리학회가 해양공학을 대변하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및 관변단체, 산업체, 연구소 등 주요 인사들과의 조직적인 교류를 활성화 하여, 학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전문 분야별 연구회를 구성하여 국제적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학회자원에서는 ISOPE 및 유관학회와 국제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학회 총회원수는 1000여명이나 실제 회비납부 회원 수는 342명이므로 향후 학진 학회지 학문평가는 실제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함으로, 실제 회원 수 배기운동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 외에도 우리학회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많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우리 학회를 사랑하는 애정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는 힘껏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면서, 당선 소감을 줄이고자 합니다.

2007년 11월 7일
차기회장 동의대학교 기계공학과 윤한기 드림

연구회 활동

해양구조물 설계연구회 2007 추계 워크샵



2차 워크샵 기념사진



학술발표장 전경



첫째 날 행사 후 포항제철 견학

해양구조물 설계연구회 제 2차 워크샵이 2007년 10월 25~26일 양일간 가을의 경취가 물씬 풍기는 천년고도 경주의 불국사를 이웃한 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워크샵에는 총21개 기관의 65명이 참석하여 해양구조물 설계연구회 초대 워크샵에 이어 산·학·연이 지속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1차 워크샵에 이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POSCO, RIST, 한국해양연구원, 동화엔텍,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선급, 부민엔지니어링, 세호엔지니어링, 인하대, 부산동의대, 울산대 등이 참여하였고 대우인터내셔널, KT 서브마린, 삼원밀레니엄, UTO Int'l Corp. 가 새로 참석하였다.

손석기 연구회장의 환영사와 포스코 김진일 전무, 홍석원 해양공학회장의 격려사로 제 2차 워크샵의 막을 올렸으며

손석기 전무의 “해양플랜트 산업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필두로 첫날의 학술발표가 시작되었다.

양 일간 Concept Design, Process, Motion & Mooring, Fatigue, Strength & Transportation의 3개 세션에서 총 14편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1차 워크샵에 이어 14편의 발표 중 기업 및 연구소에서 11편을 발표하여 그 동안 해양구조물 설계기술에 대한 현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회 활동을 통해 해양, 화공, 회학, 조선, 기계, 전기, 전자, 토크 등 디자인의 종합 해양플랜트 산업 관련 다양한 여러 기업들이 더욱 많이 참석하여 기술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날 워크샵 행사 후 포스코의 준비로 포항제철 현장견학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근대 제철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산업화를 구성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선배들의 땀과 열정을 몸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견학을 마치고 가진 만찬장에서는 각 발표 기관마다 개별적 소개를 통해 인사를 나누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참석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장을 제공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해양공학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포스코 워크샵이 후원하였으며 특히 포스코는 장소제공은 물론 시설검학 및 기념품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포스코의 따뜻한 후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사 준비를 위해 궂은 일마다 않고 수고해주신 윤기영 총무님, 정준모 회원, 혁회 이희진 사무국장께 어울러 감사드립니다.

(홍사영 편집이사)

해양구조물 설계연구회 2007 추계 워크샵 일정표

제1일차 (2007. 10. 25)				
시 간	제 목	담당/발표	소속	장소
13:30~13:35	개회선언	윤기영부정총무	현대중공업	오운홀
13:35~13:40	개회사	손석기(전무회장)	현대중공업	오운홀
13:40~13:50	격려사	김진일 전무 홍석원 전무 한국해양연구원	POSCO 오운홀	현대중공업 오운홀
13:50~13:55	공지사항	윤기영부정총무	현대중공업	오운홀
13:55~14:00	Break			
Session 01(Concept Design) / 좌장: 김영복 부장				
14:00~14:25	해양 플랜트 산업기술의 현황과 전망	손석기	현대중공업	오운홀
14:25~14:50	POSCO Offshore 강재 개발현황	곽병오	POSCO	오운홀
14:50~15:15	유동성을 고려한 해상 구조물의 설계 대식	충사영	MOERI	오운홀

수중로봇 연구회 추계워크샵

다음과 같이 수중로봇연구회 추계워크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자 : 2007년 12월 7일
- 장소 : 포항공대 정밀학술정보관(지능로봇연구소)
- 문의 : 제주대 김준영 교수(064-754-3485, jkim@cheju.ac.kr)
- 연구회 홈페이지 : <http://www.korea-uuv.org>

제2일차 (2007. 10. 26)				
Session 02(Fatigue/Fracture/Strength/Safety) / 좌장: 임성우 박사				
시 간	제 목	담당/발표	소속	장소
09:00~09:25	부식 식육형 해구류 및 해류 분포 연구	오민환	현대중공업	화랑홀A
09:25~09:50	해양구조물 강재의 하수부피로	임성우	RIST	화랑홀A
09:50~10:15	Special fatigue tests for Main Hall of WOFO FG	이종구	한국선급	화랑홀A
10:15~10:30	Break			
10:30~10:55	구조물을 강재의 파단조건에 따른 설계 및 이론 연구	정준모	현대중공업	화랑홀A
10:55~11:20	해양구조물 안정해석	김동환	삼성중공업	화랑홀A
11:20~11:45	Implementing Critical Free Surface to Marine Vessels and Ships	Michael Lee	UTO	화랑홀A
Session 03(Process/Motion/Mooring) / 좌장: 장래대 책임				
09:00~09:25	복합재료 계산식의 복합적 변위 특성에 대한 고찰	박인규	울산대학교	신라홀
09:25~09:50	Sim. hole 형상변화에 따른 해류 및 해류에 따른 연구	배경수	삼성중공업	신라홀
09:50~10:15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Royal Wave Kinematics using PV Technique	정광효	동의대학교	신마홀
10:15~10:30	Break			
10:30~10:55	구조물을 강재의 파단조건에 따른 설계 및 이론 연구	조철희	인하대학교	신라홀
10:55~11:20	해양구조물 안정해석	김복수	대우조선해양	신마홀

해양산업 리더 : POSCO 수요개발그룹

포스코는 미래 철강 수요산업 및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고강도, 고성능, 친환경의 수요개발 활동에 주력해 나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건설, 자동차 등의 경합 소재시장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최근에는 해양플랜트등의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의 강재수요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양플랜트는 최근 5년여 동안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유가 기조의 지속으로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조선수요의 보완 또는 대체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포스코는 이러한 해양플랜트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해양플랜트용 TMCP강을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해외 오일 메이저사로부터 품질인증 획득과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해양플랜트용 강재 공급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소재 공급구조상, 해양플랜트 발주사인 오일 메이저 사에서 품질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강재공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지난 2003년부터 세계적인 오일 메이저사인 Shell사를 비롯한 주요 석유메이저 등에 대한 50Kg급 해양플랜트용 TMCP강 품질인증을 연이어 획득하였다. 이어 지난해 해양플랜트용 강재중 최고 레벨로 꼽히는 60kg급 개발에 성공하고, 올해 Shell사에 품질인증을 취득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60kg급까지 인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주하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실제로, 2003년 동해 가스전을 시작으로 하여 최근 Modec, Vasai, Tombua 등의 세계 유수 프로젝트에 강재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해양 플랜트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고강도화, 극후불화, 한랭지 적응성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해양플랜트용 강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피로성능, 해수부식 평가 등 재 이용기술 측면의 연구와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ISOPE (세계해양공학회) 등 해양분야 전문학회 등에 발표하여 전문가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기존의 조선사등의 고객사, 설계사 및 Oil Major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2006년 상반기부터는 해외 직수출 시장에 진출하여, 동남아 및 중동지역 등에서의 해양플랜트용 TMCP강재의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포스코는 시장 Needs에 대응하여 양질의 강재를 조기 개발하고, 발주처/설계사 대상의 프로모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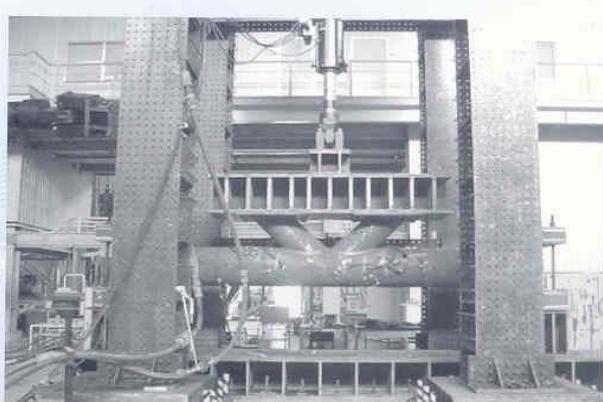
〈김철수 수요개발그룹리더〉



▲[사진 1] POSCO 해양강재가 초도 공급된 동해1 가스전



▲[사진 2] POSCO 해양강재가 적용된 MODEC TLP(삼성중공업 제작)



▲[사진 3] 실물크기 해양강재 구조물 피로시험 설비(RIST)

특집 I Hot Issue 기술보고 : Agbami FPSO Project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고가 해양프로젝트인 Agbami FPSO 프로젝트가 10월 2일 옥포만 DSME 야드에서의 마무리 의장작업을 끝내고 목적지인 나이지리아를 향해 75일간의 길고 긴 항로에 올랐다.

오는 12월 말께 현지에 도착해 해상설치 작업에 들어가며 내년 3월에 주문주에게 최종 인도할 예정으로 있다. Agbami FPSO는 나이지리아 서쪽 해상 70마일 지점 수심 1,400여m Agbami 삼해유전에서 원유를 생산, 저장,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2004년 12월말 쉐브론이 출자하여 설립한 Star Deep Water Petroleum 사로부터 약 1조 2천억원에 이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설계와 생산을 포함 32개월만에 Sail-out하는 성과를 얻었다.

1) 조선해양산업의 메가트렌드 반영

대수심화, 대형화, 융·복합화라는 조선해양산업의 메가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초대형 프로젝트인 Agbami FPSO 프로젝트는 대형 드라이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 플로팅 크레인 등 초대형 최신식 생산설비를 보유한 국내 조선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또한 거대 프로젝트의 특성 상 일어날 수 있는 설계 및 생산 제공정간의 간섭과 불일치를 미리 3D Modeling & Simulation 등 최신식 설계검증시스템들을 활용하여 제거함으로써 원벽한 품질 및 납기 준수를 달성할 수 있었다.

2) 세계 최대, 최고가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길이 320×폭 58.4×높이 32m의 크기와 함께 총중량 105,000톤 그리고 수주금액 1조 2천억원으로 이 부문의 기록들을 새로이 썼다. 길이의 경우 63빌딩을 늑혀놓은 것보다 약 71m 더 길며, 성인 175만명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이다. 일생산량은 25만 배럴이며 216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FPSO이다.

3) 명실상부한 EPCI 수행방식 프로젝트

설계와 생산이 분리되는 예가 흔한 해양공사에서 일괄수주계약(EPCI; Engineering, Procurement, Commissioning and offshore Installation) 수행방식으로 단일 조선소가 기본·상세·생산 설계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기자재조달, 시운전, 설치까지도 일괄 수행한 최초의 초대형 FPSO 프로젝트이다. 선체(Hull)와 14개의 대형모듈을 포함하는 상부구조(Topside)를 하나의 조선소에서 통합 설계하고 건조함으로써 간섭과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이는 품질과 납기 준수로 이어졌으며 기자재 국산화율 향상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4) 840만 무재해 시수 달성

요즈음 발주되는 해양공사에서 주문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생산이 아닌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gbami FPSO 프로젝트는 해외 설치해역의 시수 포함 840만 무재해 생산시수를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5) 설계 및 생산, 품질 혁신

설계상류화(Constructability), 동시설계, 3차원 설계 & Digital Shipbuilding, 원가절감 및 품질혁신 아카데미 '슬기마루', 지식경영시스템 '디노', ERP 운영체계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혁신활동은 대형공사일 수록 높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대우조선해양(주) 유체R&D팀 김용수 부장)



▲[사진 1] Agbami FPSO 설치해역



▲[사진 2] 3D Modeling Data



▲[사진 3] 안벽탑재 공정



▲[사진 4] 야간 안벽작업 광경



▲[사진 5] 옥포만을 떠나는 Agbami FPSO

회원사 및 회원 동정

학회지 영문편집 간사 교체

그동안 학회지 영문편집 간사로 수고해 주신 부성윤 박사께서 그동안 몸담으셨던 해군사관학교 교수직을 마치시고 Houston Offshore Engineering(HOE)으로 직장을 옮기 시게 되어 부산대학교 최한석 교수께서 학회지 영문편집 간사직을 맡으시게 되었습니다.

제12대 해양공학회 회장 당선

우리 학회의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제12대 회장(2008~2009년) 선거 투표 결과, 아래와 같이 윤한기 후보자가 당선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아 래 -

가. 개표일시 : 2007년 10월 5일 금요일, 17시

나. 장 소 : 학회사무실

다. 총 선거인수 : 69명

총 투표수 48표, 유효투표수 47표(투표율: 70%)

라. 개표결과 : 찬성 43표, 반대 4표, 무효 1표

마. 당 선 자 : 윤한기(동의대학교 교수)

제2기 평의원 선출

2007. 9~2009. 8까지 2년 임기로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실 제2기 평의원 30명이 다음과 같이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리며 학회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나다 순)

No.	성명	소속	No.	성명	소속
1	강 병 윤	한국중소기술연구소	16	서성부	동의대학교
2	강정구	삼성중공업㈜ 간성부문	17	송무석	동의대학교
3	강창구	한국해양연구원	18	신문섭	군산대학교
4	공인영	한국해양연구원	19	신승호	한국해양연구원
5	구자삼	부경대학교	20	신현경	울산대학교
6	김동준	부경대학교	21	오세규	(주)미래카
7	김용환	서울대학교	22	윤정방	한국과학기술원
8	김우전	목포대학교	23	이종무	한국해양연구원
9	김재수	한국해양대학교	24	이판록	한국해양연구원
10	김한태	부경대학교	25	전봉환	한국해양연구원
11	김현주	한국해양연구원	26	조규남	동의대학교
12	류철로	부경대학교	27	최한석	부산대학교
13	박구용	현대건설㈜	28	현범수	한국해양대학교
14	박노식	울산대학교	29	홍기용	한국해양연구원
15	박주용	한국해양대학교	30	홍도천	충남대학교

● 신입 회원을 환영합니다! ●

No.	성명	회원번호	회원구분	소속 / 직위	No.	성명	회원번호	회원구분	소속 / 직위
1	신재웅 (Jang-Ryong Shin)	071242	정회원	대우조선해양㈜ 해양수선업체설계 / 차장	29	이지훈 (Ji-Hoon Lee)	071272	학생회원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 대학원생
2	강희석 (Hee-Seok Kang)	071243	정회원	삼성중공업㈜ 서울설계부 / 차장	30	윤석민 (Suk-Min Yoon)	071273	학생회원	부경대학교 기계공학부 / 대학원생
3	장영기 (Yeo-Young Chang)	071244	정회원	대림산업㈜ 부장	31	조호준 (Ho-Jun Choi)	071274	학생회원	동의대학교 기계공학과 / 대학원생
4	구원철 (Neon-Cheol Koo)	071245	정회원	Techip USA Fixed & Floating Systems Eng. / Sc. Specialist	32	김현상 (Hyun-Sung Kim)	071275	정회원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 연구원
5	박승근 (Kyun-Seung Park)	071246	정회원	삼성중공업㈜ 해양기본설계팀 / 전무	33	장준호 (Joon-Ho Jeong)	071276	학생회원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 / 대학원생
6	박일웅 (Il-heum Park)	071247	정회원	전남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부 / 부교수	34	강동현 (Dong-Bae Kang)	071277	학생회원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 대학원생
7	이진철 (In-Cheol Lee)	071248	정회원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 교수	35	우진호 (Jin-Ho Woo)	071278	학생회원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 대학원생
8	정향순 (Hyung-Soo Chang)	071250	정회원	리미스트 / 대표이사	36	홍동수 (Dong-Su Hong)	071279	학생회원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 대학원생
9	김희정 (Tae-hyung Kim)	071251	정회원	한국해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 조교수	37	김종구 (Jong-Gyu Kim)	071280	학생회원	울산대학교 조선공학과 / 대학원생
10	백기동 (Ye-Dong Bark)	071252	정회원	국전환경 해양환경 / 기술이사	38	조문희 (Moon-Hee Jo)	071281	정회원	상성중공업㈜ 서울해양설계센터 / 대리
11	윤정렬 (Jeong-Yeol Yoon)	071253	학생회원	한국해양대학교 선박생산 / 대학원생	39	이정현 (Jiyoung-Lee)	071282	정회원	인하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 조교수
12	서성호 (Sung-Ho Shuh)	071255	정회원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소 증식연구팀 / 해양수산연구사	40	박재현 (Jaeh-Yung Park)	071283	학생회원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 박사과정
13	김경태 (Jeong-tae Kim)	071256	정회원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 교수	41	이문진 (Munjin Lee)	071284	정회원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인증연구소 해양오염방지연구사업단 / 책임연구원
14	구희희 (Tae-Hee Koo)	071257	학생회원	제주대학교 해양정보시스템학과 / 석사과정	42	조호연 (Ho-Yeon Choi)	071285	정회원	삼성중공업 / 서울한양대학교 조선계열센터 / 대리
15	김희창 (Hee-Chang Kim)	071258	정회원	삼성중공업㈜ 서울해양설계팀 / 부장	43	김재진 (Jae-jin Kim)	071286	정회원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운송설계연구부 / 연구원
16	백준준 (Hyun-Jun Park)	071259	학생회원	KAIST 견습 및 훈련교수 / 박사과정	44	서정화 (Young-kyo Seo)	071287	종교원회원	한국해양대학교 경기계공학부 / 조교수
17	정향호 (Kwang-Hyo Jung)	071260	중진회원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교수	45	송태호 (Taehoon Song)	071288	학생회원	경상대학교 경기계공학과 / 대학원생
18	이상국 (Sang-guk Lee)	071261	정회원	한전 전력연구원 원자력발전연구소 / 선임연구원	46	김인철 (In-chul Kim)	071289	정회원	동서대학교 토픽교류학과 / 교수
19	임경희 (Kwang-Hee Im)	071262	정회원	우석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과 / 부교수	47	김정민 (Young-in Kim)	071290	정회원	삼성중공업 서울해양설계센터 / 대리
20	조현만 (Hyun-man Cho)	071263	정회원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 연구교수	48	강동호 (Hyo-Dong Kang)	071291	학생회원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21	변재윤 (Jae-Un Byeon)	071264	학생회원	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대학원생	49	남종오 (Jong-O Nam)	071292	학생회원	부산대학교 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22	조현경 (Hyun-kyung Cho)	071265	정회원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 부교수	50	이상현 (Sang-Hun Lee)	071293	정회원	삼성중공업 / 과장
23	박영철 (Myungchul Park)	071266	정회원	DSME&R㈜ 개발2팀 / 연구원	51	이우동 (Woo-Dong Lee)	071294	학생회원	경상대학교 해양토목공학과 / 석사과정
24	임성렬 (Sung-Pil Lim)	071267	학생회원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 대학원생	52	김원호 (Won-Ho Kang)	071295	정회원	동아대학교 토목공학부 / 교수
25	이주원 (Juwon Lee)	071268	학생회원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53	이상의 (Sangeui Lee)	071296	정회원	부산대학교 운동건강연구실 / 연구원
26	이소정 (So-Young Lee)	071269	학생회원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 석사과정	54	김호경 (Hoyougeum Kim)	071297	학생회원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 / 석사과정
27	이원경 (Won-Taeck Lee)	071270	학생회원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 석사과정	55	류승우 (Seung-woo Ryu)	071298	학생회원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 박사과정
28	임주현 (Ju-Heon Lim)	071271	학생회원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 석사과정	56	변성호 (Sung-Hoon Byun)	071299	정회원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인증연구소 / 연구원

해양공학 연구실 탐방

해양공학 연구실 탐방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강구조연구소

POSCO가 전액 출연하여 1987년 3월 경북 포항시에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종합연구원인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이하 RIST)의 강구조연구소를 소개합니다.

RIST는 부품 신소재 연구센터, 설비 자동화 연구센터, 환경 에너지 연구센터, 울산 산업 기술연구소, 신뢰성 평가센터로 구성된 연구본부와 마그네슘 연구단과 연료전지 연구단 및 강구조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강구조연구소는 건설 분야에서 강재 이용 확대 및 강재 신수요 창출을 위해서 1996년 7월 경기도 기흥에 설립되었다.

건설 분야의 전문 연구소로 발족된 RIST 강구조연구소는 박사급 연구원 22명을 포함한 연구원 32명과 기술·행정부문 인력 등 총 43명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003년 12월 해양구조용 강재인 API 2W GR50의 Shell사 Vendor 인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해양분야 연구를 시작하였다. 해양 관련 연구로는 POSCO 강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구조물 크기의 Tubular Joint 및 TLP Tendon Porch 등에 대한 피로실험 및 국내 조선

사의 애로기술인 해수부식 피로실험 등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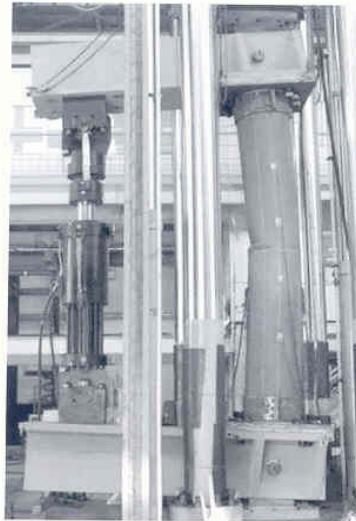
또한 대우조선해양과 공동으로 DNV와 Statoil과도 국제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조선3사와 POSCO와 함께 분기당 1회씩 해양구조물 R&D 정보교류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 관련 연구가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RIST 강구조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강구조 실험설비에 기인한다.

지상 3층, 지하 1층의 1350평 규모의 강구조 실험동에는 높이 7m, 길이 20m 구조물의 인장실험과 압축실험 및 휨실험이 가능한 1000톤 UTM과 300톤 UTM 등이 있다. 또한 높이 5m, 길이 15m 구조물의 피로실험을 할 수 있는 200톤과 100톤 FTM이 있다.

특히 길이 32m, 폭 20m, 높이 10m의 반력상과 반력벽에서는 300톤, 200톤, 100톤, 50톤, 10톤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평가할 수 있다. RIST 강구조연구소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양산업의 발전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서 불철주야 해양구조물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홍사영 편집이사 취재)



▲[사진 1] API 강관



▲[사진 2] Tubular Joint



▲[사진 3] Tendon Porch



▲[사진 4] CTOD 실험



*The 18th International Offshore (Ocean) and
Polar Engineering Conference & Exhibition*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July 6-11, 2008

Click on www.tourismvancouver.com about Vancouver.
Plan to Attend ISOPE-2008 Vancouver, the city of 2010 Olympic.

Since ISOPE-1992, the annual ISOPE conferences have been the world's largest technical conferences of its kind with peer-reviewed papers. The ISOPE-2007 Lisbon with 950+ attendance broke the all-time record-breaking attendance. Following the successful organization of ISOPE-2007 Lisbon Conferences (120 sessions), the ISOPE-2008 Vancouver is being organized by Technical Program Committee (TPC)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ISOPE) with 27 cooperating organizations and societies (a partial list on the back). Its objective is to provide a timely international forum for researchers and engineers.



Call For Papers

Update at
www.isopec.org

DEADLINES	Abstract Submission	October 20, 2007
	Manuscript for Review	January 15, 2008
	Final Manuscript due	March 24, 2008

Prospective authors are invited to submit ([E-mail meeting@isopec.org](mailto:meeting@isopec.org) or Fax 1-650-254-2038) your abstract in 300-400 words to: (1) Online abstract submission on www.isopec.org; (2) One of TPC members (session organizers, see backside); or (3) ISOPE-2008 TPC,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USA (Phone 1-650-254-1871) (observing the above key dates. Abstract should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e results and/or the originality. Abstract must include the paper title, all authors' and co-authors' names, affiliations, full addresses, and telephone and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 of the corresponding author).

PAPER REVIEW AND PUBLICATIONS. All papers will be rigorously reviewed prior to acceptance. The accepted papers will be included in the Conference proceedings, which will be available at the Conference and for worldwide distribution. Papers of archival value will be further considered for publication i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ing* www.isopec.org.

Good ISOPE group discount room rates, Technical Visits, Social Events and Sightseeing tours are being arranged.

수정/공고

학회소식지 4호(2007년 5월) 6면의 공지사항 및 회원동정 기사 중 학회 20주년 기념 2006년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 워크샵 후원사 중 대림건설(주)를 대림산업(주)로 정정하며, 선임특별회원 대양전기공업(주)의 영문표기, DAEYANG ELECTRIC Co, LTD 를 DAEYANG ELECTRIC Co, LTD로 정정합니다.

한국 해양공학회 입회안내

www.ksoe.or.kr 학회안내> 입회안내> 입회원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학회로 보내주시고,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회원구분	입회비	연회비
정회원	10,000원	30,000원
학생회원	10,000원	15,000원
종신회원	10,000원	500,000원(종신회비)
단체회원	없음	100,000원
특별회원	특급 100,000원	6,000,000원이상 (월 500,000원)
	1급 100,000원	3,600,000원이상 (월 300,000원)
	2급 80,000원	2,400,000원이상 (월 200,000원)
	3급 60,000원	1,200,000원이상 (월 100,000원)
	4급 30,000원	600,000원이상 (월 50,000원)
	5급 20,000원	360,000원이상 (월 30,000원)

학회 임원

(2007~2008년도)

회장

홍석원(한국해양연구원)

부회장

재정: 권재형(현대건설) 오병욱(현대중공업)
정방언(대우조선해양)

사업: 남기우(부경대학교)

국제: 배기성(경상대학교)

총무이사

홍섭(한국해양연구원)

학술이사

곽승현(한국대학교) 김도영(홍익대학교)
박한일(한국해양대학교) 신동목(울산대학교)
전인식(건국대학교) 최경식(한국해양대학교)

사업이사

권영섭(조선대학교) 김규한(관동대학교)
김용철(영남대학교) 문창권(부경대학교)
이익효(여수대학교) 홍남식(동아대학교)

편집이사

권순홍(부산대학교) 김도삼(한국해양대학교)
김선진(부경대학교)

부성윤(Houston Offshore Engineering(HOE))

안석환(부경대학교) 홍사영(한국해양연구원)

재정이사

이종락(가스안전교육원) 정대연(대영엔지니어링)
하문근(삼성중공업)

기술이사

김귀식(제주대학교) 노인식(충남대학교)
박원조(경상대학교) 윤종성(인제대학교)
조효제(한국해양대학교)

국제이사

고재용(목포해양대) 기성태(서울산업대학교)
김윤해(한국해양대학교) 성우제(서울대학교)
조원철(중앙대학교) 조철희(인하대학교)

감사

김가야(동의대학교) 윤한기(동의대학교)

고문

류철로(부경대학교) 박노식(울산대학교)
신민교(한국해양대학교) 오세규(부경대학교)
한건모(동아대학교)

대진기획

사보, 카다로그, 소식지
전단지, 각종 인쇄

TEL : (051)441-6761

FAX : (051)463-3437

H·P : 010-7130-5992